

# 독서교육을 위한 로드맵

교육의향

추교준  
지해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어느 공공도서관에서 독서교육 관련 특강을 하게 됐다. 다른 이들은 독서교육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유튜브에 '독서교육'을 검색했다. 문해력을 다루는 영상들이 가득 쏟아져 나왔다.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보다가 4시간이 넘어가자 가슴이 답답해서 꺼버렸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 아이의 문해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받아쓰기로 맞춤법을 익히고 기본적 어휘와 말뭉치를 이루는 한자 공부를 해야 하고 입말로 책을 읽어야 한다. 동시에 초등 고학년까지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다. 초등 저학년에는 유익한 학습만화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례하여 글밥이 있는 책들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독후활동은 하면 좋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다음엔 쓰기다. 초등 저학년에는 일기 쓰기를 하고 점차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

는 것이 익숙해지면 독후감 쓰기로 나아가며 초등 고학년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해 비판적 글쓰기, 논술문 쓰기로 나아가면 된다. 방학 시기에는 다음 학기 공부를 대비하여 틈틈이 교과연계 배경독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주요 키워드를 활용한 글을 미리 한 번 써보게 한다.

초·중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독서교육의 비결을 제시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이다. 아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유지해 주라는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면 각각 제 나름 즐겁고 유익한 일인데 이를 '입시' 교육이라는 맥락에 따라 배치해 놓으니 시험 문제를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낱 기교로 전락한다. '대학 입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뻔한(!) 결론을 내려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다. 곰곰이 생각하니 '로드맵'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로드맵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흥미를 잃도록 하지 않으면서 부모 자신들의 계획을 이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통제하는 일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로드맵이

성공하는 사례를 알지 못한다. 정말 자발적인 아이라면 자신만의 로드맵을 좌충우돌 스스로 그려나갈 것이다. 정말 부모가 원하는 공부만을 하는 경우, 그 공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설령 자발적으로 부모가 시키는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고 했다 치자. 그 경우에도 결국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한 자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옳다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저서올대 법대 출신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파탄 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정말 자발적으로 독서 관련 로드맵을 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인간적 성장을 우리의 삶을 닦아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필연과 우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 읽기도 비선형적이고 우발적이다. 아이가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무슨 책을 언제 어떻게 읽을지는 아이마다 제각각이다.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로드맵을 세울 경우, 함께 이야기하면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되 최종 결정권은 아이의 손에 쥐여주자.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부모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기의 책을 들고 재미있게 읽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성장에 빚대어 아이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 社說

# 추수기 눈 앞인데, 재고 쌀 어찌 할텐가

### 의무수입 중단 등 대책 내놔야

광주·전남 농협이 재고 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마다 2023년산 재고 쌀이 '천장을 뚫고 나올 만큼'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쌀 산업의 위기다. 쌀은 농업의 근간이면서 식량안보 시대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소홀할 수 없는 산업이다. 쌀 산업의 기반을 지킬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1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협이 올해 매입한 쌀은 30만 6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2.3%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한 쌀은 22만 1000톤으로 전년보다 2만 7000톤 늘었지만 같은 날 기준 전남농협 쌀 재고는 8만 5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04.7% 폭증했다. 광주지역 농협도 지난달 15일 기준 쌀 재고량이 1293톤으로 전년보다 251.5% 증가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햅쌀을 사들이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현실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0만 2000 톤에 이른다.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수입쌀도 문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쌀 개방(관세화) 유예 조건이던 쌀 의무수입은 지난 2014년 쌀 시장 개방으로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지금도 매년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11%가 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작금의 쌀값 폭락이 정부의 발표대로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고 수입쌀 때문이라는 게 농민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더 이상 남아도는 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부분의 수입쌀을 식용 외로 사용하는 일본처럼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지구촌 식량원조 확대 등 재고 쌀 해소 대책도 내놔야 한다. 햅쌀이 나오는 추수기가 눈 앞인데 창고에 가득찬 재고 쌀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한시ಗ 급하다.

# 생명나눔과 기부, 기대되는 헌혈기부권

### 관심과 참여로 활성화 해야

헌혈과 기부를 동시에 실천하는 '헌혈기부권'이 주목받고 있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전혈, 혈장, 혈소판 헌혈자는 5000원, 판혈장 헌혈자는 8500원이 기탁되는 제도다. 헌혈기부권으로 적립된 성금은 향후 장학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긴급지원·건강증진·생명보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분야에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32만여 명이 헌혈 후 기부권을 선택해 13억 6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광주·전남에서는 2만 3898명이 헌혈 기부권을 선택, 1억 1040만 원의 기탁금이 모아졌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헌혈자 11만 1753명 중 1만 7464명이 기부권을 선택해 7104만 2500원의 기부금이 적립돼 연말에는 작년 기부권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헌혈자 6.5명 당 1명이 기부권을 선택한 것으로 지난해 9명 당 1명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헌혈기부권을 선택한 헌혈자는 피로 생명을 나누는 봉사와 함께 기부까지 하는 뿌듯함을 더할 수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29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5.9일분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적정 보유량 기준인 5일을 넘겼지만 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 중이다. 혈액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헌혈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자발적 헌혈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혈액 수급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헌혈을 받는 상품을 다시 기부하는 헌혈기부권은 자율적 헌혈 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헌혈과 함께 기부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라 홍보만 더 이뤄진다면 헌혈 동참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헌혈기부권 제도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다. 헌혈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혈기부권' 확산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스위스 니트발덴주에서 열린 클레베날프 축제 중 알프스 연주자들이 '알프스 동시 연주' 기네스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이 부문 종전 기록은 555명이었으나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1000명 넘는 연주자가 함께했다. '알프스'는 알프스의 목축 지역에서 목동들이 불던 길이 3.4m에 달하는 스위스 민속 목관 악기다. AP/뉴시스

### 서석대

최근 '베이비부머'가 관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베이비부머란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일컫는 말로, 1차와 2차 세대로 나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사이에, 2차는 1964~197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1차에 이어 2차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됐지만 퇴직 이후 이들의 생계를 뒷받침해 줄 일자리는 부족해 자영업 진입 폭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은 사업 실패로 이어지며 향후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퇴직 이후 자영업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세대의 퇴직 시점과 맞물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목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의 26.6%를 차지했



다. 특히 전남지역 비중은 52.7%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 나이는 만 60세로, 퇴직 이후 평균 수명까지 20년 이상은 일을 더 하면서 생활해야 하지만 일 자리는 한정돼 있다. 때문에 비교적 진입이 쉬운 자영업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경험이 없는 은퇴자들이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광주와 전남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는 각각 3009건과 298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우려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고령층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입을 완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지속해서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고령층 채용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10여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에 들어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은퇴 문제를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특정 세대의 고민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